

‘메날두’ 가고 ‘음바페’ 왔다

<메시+호날두>



음바페



호날두

세계 최고의 공격수 자리를 양분하고 있는 리오넬 메시(31-바르셀로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레알 마드리드)의 ‘세기의 월드컵 대결’이 무산됐다.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2018 러시아 월드컵 16강전에서 3-4로 프랑스에 패한 데 이어 호날두를 앞세운 포르투갈도 16강전에서 1-2로 우루과이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다.

만약 아르헨티나와 포르투갈이 16강전에서 승리했다면 이들 두 팀은 8강전에서 만날 예정이었다. 메시와 호날두의 사상 첫 월드컵 맞대결이 성사되는 것이다.

이들의 나이를 고려하면 러시아 월드컵은 두 사람의 맞대결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다. 최고 흥행카드 두 장이 날아가면서 러시아 월드컵도 감이 확 빠졌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메시와 레알 마드리드 소속인 호날두는 프로 무대에서 최고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라이벌이다.

이 때문에 월드컵에서 이들의 자존심을 건 빅뱅이 벌어질지는 축구팬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그러나 메시와 호날두는 16강전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아르헨티나·포르투갈 8강 탈락 메시 vs 호날두 세기 대결 무산 ‘노골·은퇴 기로’ 초라한 퇴장

못하고 다소 초라한 퇴장을 했다.

둘은 월드컵에서는 대표팀을 홀로 이끌다시피 하는 ‘가장’으로서 고군분투했지만, 뛰어난 개인 역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 동병상련을 겪었다.

두 선수 모두 조별리그가 끝나면 침묵하는 징크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메시는 단판 승부(녹아웃)로 열리는 월드컵 16강전 이후로는 8경기(756분)에서 23차례 슈팅을 했지만 한 번도 골을 넣지 못했다.

호날두 역시 녹아웃 라운드에서는 6경기(514분)에 출전해 25차례 슈팅에도 골을 기록하지 못했다.

이날 16강전에서 도움만 2개 기록한 메시는 이번 월드컵에서 총 1골 2도움을 기록하며 이듬값을 못했다. 메시는 조별리그에서도 제 기량을 펼치지 못했다. 특히 조별리그 1차전 아이슬란드전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하는 등 비난 여론에 시달렸다.

반면 호날두는 조별리그에서는 누구보다 화려한 활약을 펼쳤다.

스페인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했고, 모로코전에서도 1골을 추가해 해리 케인(잉글랜드·5골)을 뒤쫓으며 득점왕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16강전에서는 6차례 슈팅을 했지만 골로 연결하지 못했다.

두 사람에게 이번 대회가 특히 아쉬운 이유가 있다. 나이를 고려하면 다음 월드컵을 기약하기가 어렵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메시는 35세, 호날두는 37세가 된다. 둘 다 월드컵 우승으로 화려한 경력에 정점을 찍겠다는 열정은 가득하지만, 세월을 거스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호날두는 이날 월드컵-유럽축구선수권대회 통산 최다 출장 타이 기록(38경기)을 세웠지만 웃지 못했다. 다만 스포츠맨십은 빛났다.

후반 29분 우루과이 에딘손 카바니가 종아리 통증으로 쓰러지자 직접 일코어 세워주고 부축까지 해줘 박수를 받았다. 카바니는 2골을 넣어 포르투갈 패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수였다.



메시

한경기 멀티골 ‘음바페’ 佛 차세대 영웅 선언

‘제2의 앙리’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가 프랑스를 2018 러시아 월드컵 8강에 올려놓으며 프랑스의 새로운 축구 영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음바페는 30일(현지시간) 열린 러시아 월드컵 16강전에서 두 골을 폭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4-3 승리를 이끌었다.

아르헨티나의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는 음바페가 열어젖힌 ‘새로운 시대’를 보며 월드컵 우승의 꿈에서 또 한 번 멀어져야 했다.

음바페는 아직 만 스무 살도 안 된 소년이다.

음바페는 프랑스가 월드컵 정상에 오른 1998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다. 생일이 12월 20일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프랑스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을 때 음바페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는 펠레급 활약을 펼쳤다.

2-2로 맞선 후반 19분과 23분 연달아 골을 넣으며 승부를 가른 것이다. 월드컵에서 한 경기 두 골 이상 넣은 10대 선수의 등장은 1958년 ‘축구 황제’ 펠레(브라질)가 스웨덴과의 결승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이후 60년 만이다. 젊음으로 무장한 음바페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아무도 따라잡을 수 없었다.

전반에도 음바페의 활약은 빛이 났다.

전반 시작 20분 안에 두 차례나 반칙을 유도해 귀중한 기회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아르헨티나는 엘로카드를 두 장이나 받았다. 음바페는 후반 19분 아르헨티나 수비수 3명을 따돌리다가 또 반칙을 유도, 골대 정면 지점에서 프리킥을 얻어냈다.

폴 포그바가 프리킥을 골대 위로 날리면서 골로 이어지는는 않았지만, 음바페의 활약으로 프랑스는 경기 초반 기선을 제압할 수 있었다.

음바페는 최우수선수인 ‘맨 오브 더 매치’(MOM)로 선정됐다.

카바니·수아레스 최강 투톱 도전

우루과이, 포르투갈 꺾고 8강
러시아월드컵 4경기 5골 합작
한 골 추가시 역대 최고 투톱

2018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우루과이를 8강으로 이끈 에딘손 카바니(31-파리 생제르맹)와 루이스 수아레스(31-바르셀로나)가 월드컵 역사상 가장 강력한 투톱 스트라이커에 도전한다.

우루과이는 1일 러시아 월드컵 16강에서 당대 최고 공격수 중 한 명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버티고 포르투갈을 2-1로 따돌리고 8년 만에 월드컵 8강에 진출했다.

두 골을 터뜨린 승리의 일등공신 카바니는 전반 7분 ‘단짜’ 수아레스의 크로스를 정확하게 머리로 받아 경기의 흐름을 좌우한 선제골을 터뜨렸다.

수아레스는 카바니로부터 이어받은 볼을 정확한 크로스로 연결해 카바니의 헤딩골을 이끌어냈다.

축구 통계전문사이트인 ‘옵타’에 따르면 카바니가 우루과이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기록한 45골 가운데 무려 12개를 수아레스가 도움을 줬다.

무려 카바니의 A매치 득점의 약 27%가 수아레스의 발끝에서 시작됐다. 이쯤 되면 지구상 최고의 ‘투톱 스트라이커’ 조합이라고 인정받을 만 하다.

또 카바니가 러시아 월드컵에서 3골, 수아레스가 2골을 터뜨려 둘은 4경기에서 5골을 합작했다.

카바니와 수아레스는 한 골만 추가하면 월드컵을 누빈 역대 최고의 투톱의 반열에 오른다.

둘은 30대 초반 절정의 골 감각으로 러시아 월드컵을 빛냈다.

득점 7위에 오른 카바니는 왼발, 오른발, 그리고 머리로 한 골씩 뽑아냈다. 수아레스도 왼발과 오른 발로 1골씩 넣었다. 둘 다 페널티킥 득점은 없었다.

지더라도 반전의 기회가 있는 조별리그와 달리 지면 끝장인 토너먼트에서 둘은 감심장을 뽐냈다.

먼저 수아레스는 우리나라와 격돌한 2010년 남아공 대회 16강에서 홀로 두 골을 몰아쳐 2-1 승리



카바니

수아레스

를 이끌었다. 카바니 역시 이 대회 독일과의 3-4위전에서 골을 터뜨려 단판 승부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탁월한 골 결정력을 갖춘 둘이 있어 우루과이의 창은 더욱 날카롭다.

기성용 “대표팀 은퇴 고민”

영국 뉴캐슬과 2년 계약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기성용(뉴캐슬)이 대표팀 은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성용은 1일 귀국 후 기자들과 만나 “확실하게 은퇴한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다”면서도 “어느 정도 마음은 정리된 것 같다”고 밝혔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를 마친 뒤 영국으로 건너가 뉴캐슬과 계약을 마무리하리라 대표팀 선수들보다 이틀 늦게 귀국한 기성용은 그동안 대표팀 은퇴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주장으로서 팀을 잘 이끌지 못한 책임감이 컸던 것 같다”며 “한국 축구가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서 나 자신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도 아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커리어에 있어서 소속팀에 집중할지 대표팀을 좀 더 할지 고민을 많이 했고 주변 사람들과도 많이 상의했다”며 “한국 축구가 4년간 장



기 플랜을 갖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내가 대표팀에 도움이 될지 고민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확실히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어느 시기가 되면 제 입으로 (대표팀 은퇴를) 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확실한 것은 러시아 월드컵이 기성용에게 마지막 월드컵이었다는 것이다.

기성용은 “유럽 진출 후 어떤 결정을 할 때 대표팀에 신경을 많이 썼다. 지금까지 대표팀을 위해 희생을 많이 했고 중요시했기 때문에 경기를 좀 더 많이 뛴 수 있는 곳을 택했다”며 “그러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선택했다”고 했다. 또 “내 축구 인생에 있어 유럽에서는 마지막 도전”이라며 “땀을 배울 수 있는 곳이어서 뉴캐슬이라는 팀에서 뛴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설명했다.